| 현불 논단 |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

신라末 서라벌 사치 극에 달해
金입택만 35채… 30년뒤 멸망

서울 · 경기 전체 富 · 소비집중
화려함 뒤엔 상대적 궁핍 존재
現소비 용납하나 미래는 '외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 걸까
'서울=서라벌'이어서는 안 된다

신라 49대 헌강왕 대, 서라벌의 화려함은 극에 달했던 것 같다.

"제49대 헌강대왕(憲康大王) 때는 경사(京師)에서 해내(海內)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장이 연이어져 있었으며,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다. 풍악과 노래 소리가 길에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는 철마다 순조로웠다."

〈삼국유사〉 기이(紀異)편 '처용랑망해사' 조의 기록이다. 경주의 중심부에서 해내(海內) 곧 울산 앞바다까지 지붕과 지붕이 이어지고, 그 중에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다니 그 삶의 풍요로움은 짐작할 만하다.

또 〈삼국사기〉 헌강왕 6년에는 "내가 듣건대, 지금 민간에서 집을 기와로 덮고 띠풀로 지붕을 이지 않는다 하고, 밥을 숯으로 짓고 땔나무를 쓰지 않는다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왕의 말도 기록되어 있다. 기와집이 줄을 잇고, 땔나무 대신에 숯을 사용하였다. 신라 말기 서라벌의 번성과 사치스러움을 묘사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익숙한 구절이다. 사치하고 번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그 시기가 880년 무렵, 신라의 운명이 막바지를 향해 치달릴 때다. "서울의 호수가 178,936호(戶), 1360방(坊)에, 주위가 55리(里)였고, 35개의 금입택(金入宅)이 있었다"고 기록된 시점이다. 대략 80~100만의 인구가 모인 도시에, 귀족들의 사치스런 저택인 금입택이 35채나 되는 도시가 서라벌이었다. 그 소비량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왕은 그 번성함을 떠벌리고 있었다. 하지만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던 그 도시는 불과 30여 년 뒤에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다.

굳이 길게 신라 말기 서라벌 이야기를 거론한 것은, 우리는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반성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싶어서이다. 서라벌, 경주의 그 옛 이름을 오늘날에는 '서울'이 이어받았다. 그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재물(富)의 대부분이 몰려있다. 소비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서라벌이 서른다섯의 금입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쇠망의 길을 걸었다면, 오늘날의 서울은 감당할 수 없는 고가의 아파트 단지와 주거비용에 허덕이는 사람들로 대부분을 채운다.

오늘날의 서울은 한껏 화려하다. 서울의 삶은 더욱 화려할 것이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화려함을 뛰어넘는 궁핍함이 가득하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의 끝자락에서 사치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신라의 서라벌이 헌강왕 대의 화려함을 끝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듯이, 우리의 서울도 그 화려함의 극치를 내닫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불과 50여 년의 산업화 과정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들의 번영을 만들어내었다. 그 끝이 어디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보여주는 소비가 과도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소비하고, 화려한 소비습관의 뒤에 숨겨진 궁핍함은 외면한다. 우리는 각기 자신이 속한 세대가 얻은 성취는 응당한 것으로 치부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소비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우리'의 소비하는 일상은 마땅하고 용납되어야 할 것이지만, '너희'의 일상은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치부한다.

북위(北魏)시대, 낙양의 사찰과 불상은 거대하고 화려했다. 크고 화려한 불상과 사찰이 궁핍한 백성들의 피와 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던 양현지는 "비록 경전과 불상을 만들었다고 하나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얻고자 하는 (탐욕)"이라고 지적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야 할, 우리 다음 세대가 사용해야 할 것들을 당겨서 내 것처럼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세대가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세대의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서울이 서라벌이 아니라고 누가 단정하여 말할 수 있을까.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이주노동자와 자살

코로나로 인해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러 사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자살은 가슴 아픈 사연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주민들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부쩍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여러 사건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 법당 소식들에 의하면 교통사고, 근로재해, 자살 등으로 태국 50명, 스리랑카 30명, 캄보디아 40명, 베트남 50명 등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국에 와서 뜻밖의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중 대부분이 20~30대입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는 이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이민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었다면 이 목숨들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사망한 스리랑카 이주민들 중 10명 이상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들어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살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 없어지거나 본국 공항 폐쇄로 인해서 일어난 심리적 부담감, 우울증 등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마하위하라는 작년부터 몇 차례 자살예방교육, 안전교육,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시작했습니다. 또 스리랑카 대사관, 정신과 의사 이성동 씨, 안성경찰서 외사계의 협조를 받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점을 깊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지역 대표들과 온라인 토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하위하라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주민들의 심적 안정과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포살 법회와 걷기, 명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템플스테이가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하위하라는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자살은 악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생으로 해석하여, 무조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하위하라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이런 법문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스리랑카 법당 스님들과 이 주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살은 사실 한국 내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한국 같은 이국 땅에서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가야 하는 고충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여러 교육을 받고 있지만 정신적 고통 해결 문제에 대한 교육은 없는 게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망한 30명의 스리랑카 영가를 마하위하라 사원 법당 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원에서 보시, 계, 수행으로 쌓이는 공덕을 회향하오니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社 說

월주 대종사의 유지 계승해야

현대 한국불교사의 산증인으로 종단과 우리사회에 큰 족적을 남긴 태공 월주 대종사가 적멸에 들었다. 한평생 남기신 수많은 업적과 활동성과들이 월주 대종사의 큰 그림자를 짐작케 하고 있다. 불교계 내부로는 정화운동과 종단개혁에 매진하며 종단의 역량 강화를 이끌었고, 외부로는 사회 속 종교적 역할을 직접 실천하며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각계각층에서 월주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단체들이 큰 족적과 가르침을 기리며 유지를 계승하겠다는 다짐으로 그리움을 전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해진 개개인의 인연 고리에 따른 애도는 수도 없다.

월주 대종사는 세속을 벗어나 깨달음을 구한 구도자였지만 세간에도, 출세간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격동의 시기 혼연히 떨쳐 일어나 흔들리던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한 축이 됐고 그 원력과 깨달음은 세간으로 향해 고통받는 중생을 위한 보살도 실현에 매진했다.

종단과 우리사회 곳곳에 스님의 큰 족적을 느낄 수 있는 이유다. 스님은 회고록에서 "삭발염의하고 수행자로 살아온 지난 60여년 세월이 마치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갔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술회했다. "불교와 세상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수행 역시 산에만 머물지 말고 저잣거리에서 구현돼야 한다"며 "수행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보현행원은 지금의 한국불교에 필요한 가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 원력의 처음과 끝이 한결같았기에, 월주 대종사가 남긴 임종게가 전하는 울림은 너무나 크다.

조계종 도반HC 변화 기대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자회사 인수합병을 통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도반HC는 1995년 설립된 조계종출판사를 모태로 한 영리법인이다. 불교경제생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산하에 ㈜조계종출판사와 ㈜도반미디어, ㈜도반기획, ㈜도반유통 4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명 또한 분명하다. 종단과 교구사찰, 단체의 재정확충을 지원하고 모아진 역량을 토대로 종단 목적사업에 대한 기여와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영리법인이지만, 사실 그동안 도반HC 행보는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수익 창출을 통한 종단 기여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도반HC의 실적 또한 어려움을 면치 못했다.

이번 인수합병이 도반HC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우선 도반유통과 도반미디어가 흡수통합되면서 4부 체제로 개편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달력사업부와 승소사업부, 디자인사업부, 영업부 4부서가 유동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중첩되는 업무 및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컨설팅을 통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확보했다는 점도 기대를 높인다. 주먹구구식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질개선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거듭날 도반HC가 향후 본연의 목적인 종단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재적 확충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조계종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FDA 등록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기존제품과 다른점
1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
2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음
3 냉감(시원함 정도)이 우수하여 무더운 날씨에 적합
※ 색상별로 5개 1셋트 27,500원 (개당 5,500원) / 배송비별도
※ 색상별로100개 주문시 350,000원 (개당 3,500원)
※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주문제작상품으로 5~7일정도 소요됩니다.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Antibacterial 항균 Anti-Splash 비말차단 UV Protection UV차단 Fast Drying 빠른건조 Reusable 재사용가능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